

# 재난지원금 효과 본 카드업계... 2차 지급여부 '주목'

지난 3월 실적, 금융위기 후 최대하락  
재난지원금 영향 4~6월 판매 반등  
카드업계, 1차지원금으로 실적개선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카드사들이 지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상반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때 카드사가 실적 개선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6% 감소했다. 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로 4월(5.3%), 5월(4.6%), 6월(2.3%)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6월까지 재난지원금이 90% 넘게 소진되면서 소비가 다시 위축된 것이라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치권 내 2차 지원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직까지 지급 범위, 재원, 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실시한 1차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실적개선의 효과를 거뒀다.

2분기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 국내 신용판매 승인금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22조5000억원, 승인건수는 1.8% 증가해 56억1000만건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사업다각화, 비용절감 외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 3월에는 카드승인 실적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10조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5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카드이용실적이 반등하면서 회복세가 나타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

한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앞서 비용을 치른 만큼 이번에는 사업적으로 더 큰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시스템 구축과 서버 증설로 인해 지출이 소모된 측면이 컸다"며 "2차 지급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노하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지급이 결정된다면 운영을 위한 인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며 "수수료 이익이 미미할 수 있겠지만, 재난지원금 결정이 확정된다면 정책 지원자금인 만큼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기관투자자, 해외투자 증가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 3364억  
올 1분기 말 대비 185억달러 늘어  
자산운용사 투자잔액 증가 가장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금도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31일 발표한 '2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시가 기준)은 6월 말 기준 3364억달러로 집계됐다. 1분기 말 대비 185억달러나 늘었다.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의 투자잔액 증가분이 169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외

국환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19억달러, 7억달러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는 전분기 대비 11억달러가 줄었다.

상품별로는 외국주식과 외국채권 잔액이 각각 129억달러, 55억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들어 국제금융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었다"며 "특히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주식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2분기 미국, EU, 일본의 증시는 각각 17.8%, 16%, 17.8%나 상승했다.

해외 채권투자 역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국내은행 자본비율 14.53% '하락세'

금감원 "위험가중자산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출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4.53%, 12.67%, 12.09% 및 6.32%다.

전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0.19%포인트, 0.13%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으나 규제비율 대비 3~4%포인트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은 2분기 중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4.1%로 자본 증가율 2.8%(총자본 기준)을 웃돌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대출이 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증가했고, 시장변동성 확대로 시장위험가중자산도 증가하는 등 위험가중자산

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모든 은행이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충족했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5%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2분기부터 바젤III 최종안을 도입한 광주, 전북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규모가 감소해 자본비율이 상승했다.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68%, 12.26%, 11.17% 및 5.58%다. 전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0.26%포인트, 0.28%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분기 중 자본 증가율이 2.2%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율 0%를 웃돌아 자본비율이 높아졌다"며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은 우리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 신한은행 럭키 7폴 이벤트

신한은행은 신한 솔(SOL)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을 생애 최초 가입 후 미화 1000달러 이상을 원화기반으로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럭키 7폴(Fall)'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외화체인지업예금'과 '글로벌 주식 모어(More) 외화예금'을 대상으로 한다.

/안상미 기자

## 하나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하나원큐 대출'

모든 과정 비대면 진행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대상 보증서 대출 취급의 전 과정을 모바일 비대면 프로세스로 구현한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 서비스를 지난 7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출시 한데 이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모바일 전용 보증 재원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힘을 보탤다.

대출 신청은 '하나원큐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모든 과정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보증서 대출을 위해 은행 및 재단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으로 신청한 보증신청 건은 방

문신청한 경우보다 신속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자금인 서울시 이차보전대출과의 연계를 통한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지원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향후 지역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석 기자 ysl@

## JB금융 越 증권사 'JB증권 베트남'으로 사명변경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사



JB금융그룹은 베트남 소재 손자회사인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사(MS GS)'의 사명을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JBSV)'으로 바꾸고 공식 출범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JB금융그룹은 최근 베트남 감독당국(SCC)으로부터 사명 변경 승인을 취득하는 등 영업개시에 필요한 모든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JBSV'는 광주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베트남 금융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 등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해 국내 및 해외 투자자에게 연계해 주는 영업에 주력할 계획이

다.

아울러, 현지 기업 대상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사채 발행 주선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주선 업무 등 투자금융(IB)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두윤 JBSV 신입대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시장에서 IB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수익원 다변화를 도모하고, 그룹 내 계열사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베트남 시장에서 JB금융그룹의 참병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 앞으로 그림 등으로 보험약관 확인 가능

앞으로는 그림이나 동영상 등으로 보험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보험계약 체결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다.

먼저 약관이용 가이드북을 새로 만들고, 그림·표·그래프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하고,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보험상품의 구조는 그래프 등을 활용했으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화 형태로 연출해 안내한다.

/안상미 기자